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4호 [주제 제25417호] 주제 105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샘물을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인
조용원동지, 린준길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
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
지와 공장을 일군들이 맞이
하였다.

예로부터 경치아름답고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룡악산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룡악산샘물공장은 우리 인
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물
을 보내주시려고 언제나 깊
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2007년에 조업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선군혁명정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봉악산샘
물공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정도자성이 어려워 있는 공장
을 새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선할데 대한 전투적업무를 제시
하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꽂아주는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평양시와 공장, 속도
전청년 돌격대의 일군들, 종업원들, 돌격대
원들은 결사판결의 투쟁기 풍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총정의 70일 전투기간에 예
래 대상들에 대한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
를 끌어았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생산
능력을 2배로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악산샘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출발해 전변시켰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 대한
한심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계통적
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질좋은 샘물을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
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악산샘물
공장은 봉악산샘물을 대단히 좋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세워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샘물공장이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이름을 몽소 『봉악산
샘물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시었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1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 봉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의 맛까지
천히 보아주시며 뜻내 기뻐하시였다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의 은정속에 장수
샘물로 이름높은 봉악산샘물이 사사장될

수도시민들에게 가닿게 되었다고 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
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
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이며 공장
에 불멸의 영도자속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파고로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
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둘합조종
실, 용기생산공정, 원수쁨프장, 샘물생산공
정, 제품보관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샘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먹는물을 생
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위생통파실을
새로 꾸렸으며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를 설치
하여 무균화, 무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
을뿐 아니라 생산지휘와 제품판리, 작업현장

의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샘물생산공정의 설비들을 보충하고 능력
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용기생산공정을 새
로 꾸렸으로써 용기공급으로부터 세척, 주
입, 검사, 출하공정까지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된 생산공정들에서 각종 용기에 담
겨진 샘물이 끌어여 끓여져 나오고 있는데
불만 하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물려과 및 소독
공정을 빙틈없이 차려놓으니 봉악산샘물
공장의 샘물은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악산샘물
공장이 일고있는 업무와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
화하는데 대한 문제, 생산된 샘물을 제파에
넣어야겠다는 필요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유리병용기의 색갈과 형태를

표준화,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에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
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김은 조지를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빙방곡과에
수질이 좋은 천연샘들이 대
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샘물생
산공장을 일떠세워 인민
들이 그 막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족의 그림같은 봉악산
샘물공장의 전경을 만족하
게 바라보시며 번듯하게 포
장된 구내도로와 갖가지 나
루들과 끌판목들로 물러싸
인 공장이 참으로 멋있다
고, 생산환경이 최고이라고
하시면서 아담하고 산뜻한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
들, 생산공정들만 보고서도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보장
된 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
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악산샘물공장이 품을
히 개건됨으로써 수도시민
들에게 샘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해 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
은 사회의 모든 제부가 철두
철미 인민들의 목리 풍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파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악산샘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맞출고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
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밀거진 책
일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봉악산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멀사복무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몽소 찾아
오시여 데에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편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79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두당, 두국가, 두나라 인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것과 승승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위라진

2016년 8월 2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부 출시함을 지도하시면서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만마신문『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미』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이번 시험성과에 대해 하여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끌어올 것을 시지하시였다. 이것은 복조선이 곧 다른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평하였다.

라오스통신, 중국의 홍콩『문화보』와 봉화위성TV방송, 우루파이 신문『라 후엔푸드』, 베트남『엘 푸메 씨오』, 에질트의 신문『에칠선 거제트』, 웨브씨아트『아호란 온라인』, 기

내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나이제리아의 AIT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조선과의 친선협회 페루까지부 인터네트홈페이지들, 도이췰란드언란 인터네트홈페이지『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2일과 23일 여름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아의 라디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혁명동지를 시험성과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신문, 인터네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제28회 성원들은 폭풍같은『만세!』

의 환호성으로 자기 병도자를 환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당당한 역할을 강국으로서의 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광고히 하면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덜란드『아트판』과 네덜란드『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덜란드』, 인터내트홈페이지『세계기자협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2일과 23일 여름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아의 라디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혁명동지를 시험성과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신문, 인터네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보임에는 최태복동지와 김승우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학 일군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훌륭한 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이 힘차게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훌륭한 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이 힘차게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훌륭한 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이 힘차게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훌륭한 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이 힘차게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나서는 파업과 땅도들을 제시하시

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풀속에서 김일성同志의 대학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희발전에 쌓아

나서는 파업과 땅도들을 제시하시

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작을 옹호하고 및내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철단과학연구성과로 사회주의

김정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주제 105 (2016) 년 9월 27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풋걸에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파학교육의 최고전당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 탁월한 평도의 및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했음을 지니고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수놓아온 역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는 교육사업, 민족간부육성 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종합대학부터 세워주시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됨으로써 인민의 아들딸들을 새 조선을 떠나고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내는 민족간부육성사업,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고등교육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부강하고 자주적인 인민의 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새 조국건설시기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종합대학이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들을 많이 육성하도록 결음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와 각별한 보살피심 속에서 종합대학을 혁명 인재육성의 본보기대학으로, 통남산지구를 세계에서 유통가는 대학촌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톤튼한 밑천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대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혁명하게 평도하시었습니다.

일찌기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성격적으로 이끌어주시었으며 대학을 수령에 대한 충실했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수령님의 대학, 주체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전면시켜주시었습니다. 세계 일류급대학건설구상을 펼치시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겹쌓인 정신육체적으로 대학에 세계적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코나큰 심혈과 헌신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은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우리 인민들의 실장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자, 건설자이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자애로운 아버이, 스승이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여나고 장성 강화되어 온 김일성동지의 대학, 김정일동지의 대학입니다.

세상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들이 많지만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평양의 존함으로 영광스럽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평도임으로써 빛나는 대학은 오직 김일성종합대학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에 쓰아울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용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밀에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육성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 과학자들은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

기술적으로 뛰어난 혁명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정책의 정당성을 본증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며 경제·문화, 국방력 강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통히 해결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언제나 당과 수령을 견결히옹호하였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를 실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오늘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당과 혁명의 핵심, 전위투사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 애국의 한길을 번개없이 걸어오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당과 국가의 믿음직한 핵심기관, 여러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수많이 키워내고 높은 과학연구구성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조국과 혁명앞에 이룩한 뚜출한 풍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찰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우수한 교육과학 힘과 세계과학가 인정하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이 자라나고 종합대학의 재모에 맞게 대학, 학부, 학과들이 그won하게 갖추어졌으며 교육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이 높아지고 첨단제품생산기지들이 꾸려져 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진성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대학촌을 이룬 통남산지구는 주체적인 교육, 과학의 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용축되어 있고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양성목적을 뚜렷이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관리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본과로부터 박사원, 과학연구원에 이르는 모든 교육단체에서 인재양성목적을 뚜렷이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육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학연구,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수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3면에서 계속

교원, 연구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비상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혁명의 책임fulness,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입니다. 대학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당파 조국 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과 임무가 매우 무겁습니다.

교원, 연구사들은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며 승고한 후대관과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품성, 깨끗한 교육자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교육자, 과학자이기 전에 당과 혁명에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어야 합니다. 신념의 기둥이 없는 교원, 연구사들은 아무리 높은 실력을 지녔다고 하여도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 할 수 없습니다. 교원, 연구사들은 조국의 미래를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흔심을 다 바쳐야 합니다.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며 과학연구성과입니다. 교원, 연구사들은 자질 향상 열풍, 실력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두가 모범 교수자가 되고 전공 분야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위자,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참된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야 하며 높은 실력을 고상한 품모, 뛰어난 공적으로 하여 대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부문, 초소를 담당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고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끝간이 되어야 할 핵심인재 후보들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가 되어야 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학전자도서관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필명제를 심장에 새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 만방에 빛내이는 혁명의 물관,

새 세기 유능한 인재가 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기간 성공의 열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정신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하며 깊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본초를 아끼며 학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대상은 세계이며 경쟁의 주인공은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더디고 올려세겠다는 만만한 아심을 가지고 철단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파헤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의 혁명과 명예를 자랑높이 펼쳐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교양사업과 정치조직생활, 규률 생활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를 학생들 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실력을 높이는데 치중부종시켜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당착,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시대적 책임입니다.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과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과 당의 의도에 맞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며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 대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기관들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과학기술 연구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대학에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와 인쇄설비, 교구비 품들을 최우선 보장해 주고 실습기지들과 후방기지들을 든튼히 꾸려도록 잘 도와주어 교육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대학의 교육조건과 과학연구조건,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자체자강의 원칙에서 세계일류급 대학건설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우리의 실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일류급대학건설에서 사대와 교조, 모방을

배격하며 다른 나라들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에 미루르지 말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누가 도와줄 것만 바라지 말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교육설비, 과학 연구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실험실습설비와 기체들을 개발하여 후방기지도 더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대양궁전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를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여 있는 하나의 대혁명사적지구입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더없이 훌륭한 교육교양거점으로,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더 잘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는데 순결한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와 소속대학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대학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도업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만큼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도업적을 매일 매 시각 생활 속에서 깊이 체득하도록 하며 수령님들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행정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교육로선, 방침 관철에 지향되도록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류급대학건설을 위한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전망적으로 확신성 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교직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을 전공적으로 실속있게 벌려 그들 모두를 사상정신의 강자, 열혈한 애국자, 계급의 전위투사, 고상한 도덕의 체현자로 키워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에서 교원, 연구사 대련을 들판히 꾸리며 탕생활조직과 지도를 지식인집단의 특성에 맞게 짜고들어 모른 교원, 연구사, 일군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과의 사업은 대학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생들 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키워주기 위한 조직사상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학습제일주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기본을 두고 청년대학생들과의 사업을 활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신입생선발사업에서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실력이 높고 전망성 있는 대상을 대학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이 세도와 판료주의, 부정부폐 행위를 반대하고 교직원, 학생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것을 고유한 혁명물리로, 혁명적 당풍으로 간직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파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합니다.

대학리사회와 대학당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리사회와 대학당지도위원회에서는 본대학과 소속대학들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수준을 높이며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대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대학, 학부, 학과들에서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둘파하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리사회를 본대학과 소속대학의 일군을 포함해 당과 국가, 중요단위의 책임일군들을 망라하여 구성함으로써 리사회와의 권리와 대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신심과 활동에 넘쳐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 일군, 종업원들과 학생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학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끌없이 빛내이며 세계일류급대학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울 것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보건산소공장 조업식

진행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봉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리브리브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봉고 옹 딤 바 각하

나는 당신이 가봉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려라는 기대를 표시하면서 당신이 건강과 행복한 활동과 사업에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5(2016)년 9월 29일

평양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수천세대의 살립집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연사군 피해복구 전투장에서

연사군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각지 건설자들이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고 있는 군인전선과 건설자들이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자 힘쓰는 건설자들이 10만여㎡의 소총 및 대총살립집기초공작물을 철수장에 놓아 놓고 밤낮으로 재설치하고 있다.

[경양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당의 명도밀에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높은 목표를 절실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보건부문의 물질기술도대를 풀어나가면서 충요한 의의를 가지고는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생산 및 풍급기지가 새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있다.

평양시교외의 명당자리에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위생문적으로 산뜻하게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발달려 흥룡히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혁신이자 인민들에게 풍족한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는 보건산소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언과 함께 김정일주의의 명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는 당파 조선인민당원들과 전설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서사시

강성조선의 려명을 룽남산에서 보라!

- 이 서사시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드린다 -

1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앙고 오신 대학!
빨찌 살대학!

동풀무렵 노을피는 룽남산은
한쪽의 그림이면 가
온 하늘을 물들이는 강연한 저
노을도
오늘은 류달과 불게 따는듯
창립 7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거룩한 응자
바라볼수록 아름다워라
안아볼수록 승엄하여라
태양의 눈부신 흔함으로
빛을 뿐이며
창룡에 높이도 높은
이 나라의 어머니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여!

여기선 다 보여오누나
분명을 떠이고 깊은 새 거리를
최첨단병기 광장을
우주를 날리는 우리의 위성들
룡남산을 떠나 어이 생각할 수
있으마
자리 자강의 만리마속도로
막강한 국력을 떠들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내 조국의 눈부신 오늘을

말해보자 룽남산아
수수원년 이틀없던 너의 봉우리가
언제부터
그 언제부터
내 나라의 주론 하늘을 떠인
인민의 자랑으로 높이도 높았더니

여러오누나
전국의 첫 기슭에서
강성조선의 오늘을 네다보시며
인재 강국의 첫 주후를 놓아주시면
우리 수령님 모습

얼마나 생각도 많으셨던가
백두산에서 떠고 온
빨간색에 날아 풀어놓은 해방산
길에
발길도록 끼질 줄 모르던
불빛이여

해방은 되었어도
막후와 빙궁이 웅크린 이 땅
교사는 초가에서 밤이면 광을 불을
켜들고
가난에 예들은 배 짐뱅이를 입고
사는 사람들

일제의 악랄한 괴짜책동으로
공장과 농촌 그 어디 가나 폐허뿐
하나 그보다 더 혹심한 것은
다름아닌 인재의 고갈이었거니

우리 인민에게
비탄을 임하고
새롭고 광장을 주고
이 땅에 무강한 나라를 세우자면
인재, 인재가 있어야 한다

금씨애기와 같은 그 인재가
어서서 절로 나면가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혁명에 필요한 인재들을
한시마비 키워내야 한다!

전국을 하자면
대학부터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재 중시사상을 내용으로
인재의 폐회우에
인재의 대국을 일떠세우는
대용단을 내려신 우리 수령님

아무것도 없는 빈미우에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시기상조
라는

종파분자들의 계획을
단호히 치각기시던
수령님의 그 응성이여

—아니요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우리는 종합대학부터 세워야
하오
해방된 조선에
인민의 아들딸들이 공부하는
대학은
우리가 빨찌살때부터 구상했소!

아, 피어린 창일의 전장
밀림의 우�통불가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쓰시며
해방된 조선에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공부
하는
인민의 대학을 세울것을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

이 세상에 대학은 많아도
김일성종합대학은
수령의 품에서 태어나 첫걸음마를 맨
인민의 대학
혁명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대학은 없거니

김일성종합대학은

여비이수명님의 축복을 앙고
뽕남산하늘가에 올려펴지면
배울의 풍소리는
신생조선이 암흑을 바치고
평명의 세계에 들어서는 소리

일제의 총검에
밀파 글까지 빼았기고
제 이를 석자도 뜻쓰면 사람들을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대학공부를 하는 최현한 세상
세 조선의 분명이 룽남산에서
시작되었더라

잇을수 없어라
종합대학 새 교사 준공식에
김정숙 어머님과 함께 나오신
수령님
자신께 딸아드린 빛송이를 보시며
—이쁜 꽃 꽂송이를 더니
마치 장가를 가는 깊구만!
교정에 훌리면 호탕한 그 응성

창일의 험전만리 눈보라만리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첫 대학을 세워 주신
수령님께

쫓 한 층 이 밖에 딸아드린 것 이
업진한
어제날 가난뱅이 청의무리들이
대학생이 편것이 너무도 끄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면 수령님

이렇게 시작되었더라
수령님의 손길에 달려
조선의 교육, 주체교육은
뽕남산에서 첫 자작을 내짚었더라

그날에 출판
뽕남산의 종소리는
천정의 불비속에서도
승려한 조국의 데일을 부르며
풀없이 빼아쳤나니

풀보르자 력사에
이 세상 고 어느 전쟁사에
한명의 명사가 그리도 귀중한
천성에서

대학생 출신 병사를 품 교정으로
불비준
그런 병도자가 있었던가

아, 천정의 조성용을 누르며
유정히 울려펴지면 백송례의 종소
리는
화선의 용사들을 모교로 부르며
그것은
가령 한 전쟁의 조화속에서

당과 혁명앞에 다지신 실장의
선서

그렇게 풀들이 키우신 인재들이
전후 새마이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마세
우는

수백수천의 대들보로 되었더라

그렇게 완평영 기우신 인재들이
우리 혁명의 풍간이 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총정의 네마리로 및나고있더라

우리 수령님
나라의 모세대 학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우주었기에
어제날 역사의 후진국이

오늘은 청지사장강, 군사강국으
로 거연히 웃어
이 세상 힘장을 발휘에 급여보
거니

무슨 말로 다 노래할 수 있으마
천평영 교육을 국사종의 국사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
사로 보시며

해방후 몇명의 지식인밖에 없던
이 땅에
인재대군을 키우시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도대를
미련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청녕
김일성종합대학은
아버지 우리 수령님
조국과 인민에 남기신 위대한
유산

민족의 만년재보!

하기에 우리 장군님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이라고
창립 60돐을 맞으며

봄소 봄을 드시고 한자 또 한자
대학학관까지 써주시었더라

김일성종합대학에!
이 불멸의 굽길속에
인재강국의 지원을 열어주시고
고 풀기한 력사를 펼쳐주신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바다가

설비여파

태양의 그 금빛속에
생명처럼 간직해야 할
대학의 본래가 있고
풀없이 휘황한
강성번영의 미래가 웃고있어라

김일성종합대학이 절어온 70년은
태양조선이 지성의 첫 뒷을
울리고

枉한 분명의 세계로 나아가며
이 땅에 일제대군을 키워온
70년!

백두산길새위인들의 손길아래
이 나와 무홍의 력사를 떠밀어온
70년!

오, 건국의 첫 기슭

대 학장의 10기념 대회장에서

강국의 오늘을 내다보시며

그 음성의 축복을 주시면 수령님의

그 음성

통남산하늘가에 오늘도 메아리로
울려라

—우리 민족의 자랑인

종합대학의 무궁한 번영 만세!

2

삼가

웃짓을 여미고 쟁노라
뽕남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 동상을 우러러

한손에 대 학생모를
가장이 벗어신 고 모습
젊음과 얼정이 넘치는 가슴에
김일성종합대학회장을 다시고
삼천리 간신을 긁어보시는 그 모습

우리

한없이 숭배해지는
이 미운속에 들려오누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그 스스로운 사랑감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룽남산에 오르시면
발자국소리 발자국소리

그날

그 아침
통남산을 짐에 물들이면 해돋이는
태양의 위엄을 밀어내 이어갈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장엄한 힘들이었나니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뽕남산에서 티치시면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그 맹세
이는 수령님 뜻으로
내 나와 내 조국을 만땅에 펼치

리라
당과 혁명 앞에 다지신 실장의
선서

같데다 룽남산이여
수수한 대 학생 목차임으로 우리
장군님

리사와 미래를 풍랑무진하시며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가시면
그 비상한 탐구의 낮과 밤들을

조선을 빛내일 맹세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탐독하시고 절필하신
그 모든 책들을 쌓으면 신을
이루리

고모를 빛내일 맹세를 다졌다
그 모든 책들을 펼치면 바다가
되리

구구구절

고귀한 충정이 막박치고
위대한 계승의 의지가 및 달치는
장군의 대 학 시절 본문들을
보시며

우리 수령님 얼마나 기뻐하시었
던가

신봉에도 내가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썼다고

나는 지금까지 고전 가사를 쓴
책들은 물론이고
한자와 교수, 박사들이 쓴
글들을

저기나 보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본문은
찾아볼수 없었다고…

이 혼문은 말그대로
사상의 천재만이 쓸 수 있다고
내의 사상을 100% 재승하고
내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100% 완성할수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수령님

오늘도 못 잊어 못 잊어

조선인민군장건 30돐을 경축하는
청년대 학생들을 열행행진대오

그 대오를 이끄고

보무당당히 나아가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이여

—차렷!

우로 봇!
열병대오의 앞장에 서신
장군님의 모습을 보시며
기쁘시어 만족하시어

수령님은 환하게 웃으시고

평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장행들

우리 혁명의 원로들은 엄숙히

입어서

20대의 청년장군

그이께 다합한는 경의를 보내었

어파

김정일통치 따라 나아가는 열병

대오를 보며

인민이 조국이 열광의 환호를

터치었어라

아, 김일성종합대학에 메아리치던

그날의 만세소리! 만세소리!

그것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면

두 계국주의를 태우고 하신 우리

수령님처럼

조선의 앞길에 영원히 백승을

펼쳐가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모신

조선의 영광이었겠지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려명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

북부회해북구전투장에서

최전방에 나래치는 단숨에의 기상

무산군의 피해지역 살립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

조국이 우리를 믿으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무산군의 피해복구전투장으로 진속으로 달려온 김국현소속부대 병영들은 앞길에 끊어졌다. 그들이 무산군 피해복구전투장에 차지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이미 피로는 가슴마디에 이런 경사관들의 웨침이 세차게 막통이 고였다.

단 3일동안에 읍지구의 10여동의 다층살립집기초굴착공사 현장에 왔던 조선인민군 김국현소속부대에서 말투현장을 차지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이미 피로는 가슴마디에 이런 경사관들의 웨침이 세차게 막통이 고였다.

강행군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지체없이 펼쳐가자. 북부회해북구전투장에서 가장 선진적인 건설대상인 인민들의 살립집건설에서부터 물가능을 모르는 조선인민군의 본래를 날길없이 펼쳐하마!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것을 최실험한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장병들의 눈부신 성과앞에서 군인들의 힘을 더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정한을 금지하고 있다.

위 대 한 행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서하시었다.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보다 최후전략의 미래를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0일 북부회해북구전투장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 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무산군의 피해복구전투장으로 진속으로 달려온 김국현소속부대 병영들은 앞길에 끊어졌다.

누군가의 선왕에 따라 척령총이 『김정은장군한기』를 우렁차게 부르며 절대로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대장병들은 하나같이 결의하고 암말았다.

전투현장을 차지한 즉시 부대지휘관들은 속도전설에 앞서 살립집건설장의 지대정리를 다그치는 한편 물재제취 등 준비작업을 풀체적으로 벌려나갔다.

부대정치일군들이 벌려는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아 발휘되는 속에 건설장주변에는 대형 속보판들과 구호, 표어들이 기상성있게 전개되어 군인들의 혁명열기, 투쟁정신을 세차게 푸른바다 주었다.

승리는 이미 전투현장에 마련되었다. 2.2일 기초공사에 진입한 안정남소속부대는 비롯한 여러 부대장병들의 기세는 충분하였다.

중기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4동의 살립집기초굴착공사에 일제히 달라붙은 부대군인들은 꾹꼿이 삶을 푸는 부대장병들의 속도에 놀라운 열기로 흥얼거렸다. 푸른바다에 날개를 펴는 듯한 제2연대는 원수님의 명령을 듣고 품을 펴고 잠시라도 힘을 내고 있다.

부대일 사회주의 경쟁 열풍이 세차게 터번지는 속에 온 건설

장은 불도 가니마냥 끝이었겠다. 전투현장을 진강하는 방송원의 힘과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 한두시간안에 여기저기서 흙을 놓아낸 난간은 조성되었다.

큰물피해로 품어진 도로가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대장병들은 하나같이 결의하고 암말았다.

불과 13시간만에 순수 인력으로 수천m³의 기초굴착공사파

속도전설에 리용하려면 비닐을 깔아 살립집건설장의 곳곳에 마련한 물주머니들마다에 도, 기초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창안되는 가치있는 공법마다에 북부회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는 노력이 되었고, 편이 동식 속보판을 널리 이용하여 직관선동의 위력을 날카롭게 펼치도록 하고 있다.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전호에서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가 맹목하는 글

발들은 불수록 정신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드는 직관선동

조선인민군 창출원소속부대의 전투장에는 겁이 100여m³가 되는 대형속보판이 세워져있다.

『조국봉사에 걸이 및날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라』…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전호에서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가 맹목하는 글

발들은 불수록 정신이 번쩍

된다. 겁은 먹 통우를 비롯한 정치군들은 판하 부대, 구분대들에서 직관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이동식 속보판을 널리 이용하여 직관선동의 위력을 날카롭게 펼치도록 하고 있다.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

선전호에서는 인민군원인들의 영웅적위 훈과 날을

따라 풋내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제때에 속보판에 소개선언하여 병사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 최명시의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각급 부대들의 선전선동역량과 수단들에 대한 관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대에서는 직관선동을 더욱 풍미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허상육소속부대에서는 양총선동의 위력을 날카롭게 펼쳐놓아 인민군인들을 전화위복의 국충정의 마음이 가슴드겁게 것들이다.

높아가는 살립집건설속도에 미처 세트트보정이 따라온 지 담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사관들의 신념은 그야말로 이 부대만이 아닌 읍지구의 살립집건설에 한마디로 험난한 조선인민군 각부대 장병들이 순간간을 기적창조로 맞이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김정은소속부대, 부대정치일군들은 방송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일으키는 『자리리 우리 봄이 세트트가 되어 세 살립집들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자기의 실정을 밝쳤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 우리 인민군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히나같은 실정인 것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수집, 인민복무전에 산악같이 열쳐나선 일당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일당에 성선수기의 어기저기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블로코들이 생산되고 기동적으로 전개한 제2연대에서 텐 각제와 판자들로 조립된 뒤풀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고령주, 김일성동우를 비롯한 무대의 정치일군들은 군악대원들과 예술선전대

주는 예술작품들을 적극 창작형상하도록 하고 있다.

『친근한 우리 원수님』, 『우리는 만리마루기수』, 『단숨에』를 비롯하여 예술선전대원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인민군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전투장을마다에 험경적기상이 세차게 나도록 하고 있다.

전투현장에서의 의료봉사 활발

로일군

군

들

인

민

군

